

달동네 주부들 배움열기 가득

달동네 지역 아주머니들이 참가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어머니 교실'에는 요즘 무더위와 장마에도 아랑곳 없이 다 음달의 졸업식을 앞두고 배움의 열기로 가득차 있다.

대부분 파출부·노점상 등을 하는 이들은 이곳의 지역활동 모임인 '나눔의 집'과 '소망 공부방'의 어머니 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동네 아주머니들이다.

어려운 집안살림을 꾸려가는 데도 벅찬 이들은 지난해 10월 어머니 교실을 만들어 그동안 우리말 읽고쓰기·기초한자·생활 영어를 배우는 것과 함께 노동



'어머니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상계4동 아주머니들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지방자치제를 공부하고 있다.

상계 4동 '어머니 교실' 졸업식 앞뒤 살림꾸리며 읽고쓰기·노동법등 공부

관계법·임대차보호법·여성노동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에 관해 배우고 토론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들은 어느덧 수서비리·폐놀오염·절프 전쟁 등과 같은 사회문제나 국제문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말 제1기로 졸업한 장영란(34·상계4동 산161)씨는 "이웃들과 자주 자리를 같이 하다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아주머니들은 마을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

이던 지난달 16일에는 마을 주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오제'를 성대히 가졌다.

바쁜 생활 중에도 틈틈이 짬을 내 길놀이·그네타기·강강술래 등 공동체 놀이를 준비해 마을큰잔치를 벌였던 것이다.

또 지난 3월 실시된 기초의회 선거 때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이처럼 '큰일'을 하면서도 곳곳에서 크고작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암탉이 울면 동네가 망한다"

며 한밤중에 집에 찾아와 대문을 부수는 것은 약과예요. 심지어 통·반장이 빨갱이라고까지 서슴없이 말해 차라리 동네를 떠나려고 맘먹기도 했어요."

88년 3월 혼자 단칸방을 얻어 '소망 공부방'의 문패를 내건 김은옥(33)씨는 그때의 참담했던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머니들이 수줍어하면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 찾아올 만큼 이 모임은 뿌리를 내렸다. 어머니 교실은 오는 8월로 두번째 졸업식을 갖는다.

〈박중언 기자〉